

#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의 연구 시작 계기와 연구 지속 원동력 요인 분석

## Analysis on Momentum from whic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based Convergence Researchers Began Research and Motive Factors of Research Consistency

정근하\*, 노영희\*\*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eun-Ha Jung(wrg3141@naver.com)\*, Younghee Noh(irs4u@kku.ac.kr)\*\*

### 요약

연구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에서 기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개량된 지식을 생산해 내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융합연구자들 또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타 학문과 융합연구'를 타진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과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융합연구자의 53.1%가 융합연구의 시작이 '우연한 계기(타 전공자와의 우연한 대화)'로부터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쉽지 않은 융합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중복 선택이 가능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융합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우연 | 원동력 | 지속성 | 융합연구 | 융합연구자 |

### Abstract

Researchers are persons who are destined to produce improved knowledge, with duty, responsibility and desire for overcoming limits of the existing knowledge in continuously changing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In addition, both drawing research outcomes 'contributing to the society' by tapping on 'researches convergent with other disciplines', to 'deducing meaningful research outcomes' and 'operating laboratories for fostering convergence talents', for the consistency of incessant researches are the momentum for convergence researchers to continue convergence researches.

However, an irony fact is that 53.1% of convergence researchers respond that they began convergence researches from happenstantial momentum (a happenstantial talk with other majors). This study examined what was the momentum from which convergence researches began and what was the motive with which they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and suggested how to continue convergence researches.

■ keyword : | Happenstance | Motive | Consistency | Convergence Research | Convergence Researcher |

## I. 서론

본 연구자에게 융합연구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게 한 계기가 있었다.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실에는 전공이 다른 5명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자주 했다.

**컴퓨터 전공 연구자:** 세상이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래밍 시켜버리면 세상은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사학 전공 연구자:**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되던 시대에도 법, 제도, 풍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 컴퓨터가 없던 시대의 사회문제나 지금의 사회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의 욕심이 전쟁을 만든다는 역사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도 문제는 반복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관광경영학 전공 연구자:** MICE 산업에서 10년 이상을 일했다. 매뉴얼은 만들 수 있지만, 상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세상을 프로그래밍해도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건물구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누구냐에 달려있다.

**사회학 전공 연구자:** 사회가 수학공식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들의 패턴이 관찰되는데, 그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해 두는 것이 사회학이다. 사회현상을 계층, 학력, 나이, 성별, 국적으로 나눠서 보면 답이 보인다.

**철학 전공 연구자:** 철학자들은 연구실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참 여러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연구실에서나 수업 중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내가 말하면 그냥 듣고 있지 반론하지 않는다. 나를 살피면 세상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지만 나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이 낮은 환경이 좀 불편하지만,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위의 대화에서 확인되듯이 각각의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자기 전공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융합연구자들 또한 융합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위의 대화처럼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날랐을 것이다. 그러나 가상현실 사회의 도래, 사물인터넷의 등장,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기존

의 단학제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학제를 뛰어 넘는 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 전공분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 받고 교육을 받아온 전문가들이 타 전공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1][2]. 그것은 각 전공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지식체계의 차이, 각 전공의 우월감, 유능감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융합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 전공자들과 성가시고, 번거로운 의견 조율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의 융합연구를 어떻게 시작한 것일까? 연구자는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많은 융합연구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융합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융합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학회나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타 전공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융합연구는 연구방법을 비롯하여 전혀 새로운 학문분야를 성립하게 하는 출발점을 제시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단일 분과 학문들처럼 이미 구제화된 선행연구 하에서 널리 인정받는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2] 연구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3]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융합연구를 융합연구자들은 왜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융합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융합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1. 우연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주목한 키워드는 “우연(happenstance)”이다. Rojewski(1999)[4]는 우연적 사건에 대해 ‘계획되지 않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상황적이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관련되며 진로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우연”을 키워드로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략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연한 계기’가 진로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다[5-8]. 둘째, ‘우연대처기술 혹은 우연 능력’으로 표현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을 긍정적 경험으로 변화 시켜 유용한 기회로 바꾸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15]. 셋째, 진로 결정에 고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카운슬러들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6-19].

전문이론들은 이성, 객관성, 합리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그 외의 영향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20]. 즉 대부분의 학교 교육, 직업 교육들은 학습자들이 미리 진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한 계기가 진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한 우연이론 Mitchell, Levin, & Krumboltz(1999)[21]이 있다. 즉 자신의 진로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우연’, ‘행운’, 또는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우연을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론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을 개인의 노력으로 기회로 바꾸려는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시킨다. 우연이론은 무심하게 지나쳤던 수많은 우연의 영향을 인식하려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능동성 또는 적극성을 고무시키려 한다. 수동적으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운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연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습하고 깨닫게 하려는 시도이다[15].

계획된 우연이론은 탐색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포함한다. 탐색을 통해서 기회가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잡도록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21]. 탐색이란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개념으로 개인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연이 기회로 바뀌는가 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 버린다. 따라서 우연적인 사건을 매개로 진로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

다[15]. 탐색 이후에는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호기심, 인내, 융통성, 낙관적인 태도, 위험 감수 행동과 같은 5가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20]. 이처럼 계획된 우연이론은 기존에 간과되었던 우연의 역할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 Betsworth & Hansen (1996)[22]의 연구는 남성의 63%, 여성의 58% 즉 약 2/3의 피험자가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Scott와 Hatalla(1990)[23]의 연구에서도 대학교육을 받은 94명의 여성 피험자 중(46-62세) 63%이상이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건(unexpected personal events)으로 인해 직업 경로가 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연과 계획적 준비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었다.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Hart, Rayner와 Christensen(1971)[24]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숙련직, 반숙련직의 입문과정에서 계획, 사전준비, 우연적 사건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숙련직 또는 반숙련직에서는 우연의 영향이 전문직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Salomone과 Slaney(1981)[25]의 연구에서는 비전문적인 직업군에서 우연보다는 사전준비와 계획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진로 결정과정에서 우연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숙련직, 반숙련직, 전문직이라는 넓은 범위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반면 본 연구는 오직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즉 자기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하여 ‘우연의 일반성’을 확인하였다는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각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선행연구

지속성(consis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 욕구, 의지, 만족감 등 그 일을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필요하다.

지속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속성이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활동이 반복되는 것 [26]이라 정의하였다. 즉 지속성은 한 사람의 끈기, 내구력, 집착력 등으로 해석되며,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연구들은 자원봉사 활동, 스포츠 활동, 기부 등과 같은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대해 유용식·손호중(2009)[27]은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참여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동기는 자발성이라기보다는 이기적 동기의 충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의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는 직접적으로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적 동기는 지속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이기적인 동기의 참여로 해석되며 대의적 동기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범수, 권동호(2011)[28]에 의하면 스포츠의 내적 동기에 대한 태도, 기대감 등이 운동지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열정'이 운동 지속에 상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열정'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일종의 원동력이 되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성향이 나타난다[29][30]. 이 열정은 어떤 활동에 대한 가치성, 투자성, 호의성과 연관되고, 자신의 심리적,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성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31].

김주원·김용준(2008)[32]의 연구에서는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정체성 부각, 이성적 동기, 상호 호혜성, 이타적 동기의 순으로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황용진(2011)[33]의 종교방송후원자의 기부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후원업무 서비스 품질 및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후원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이기적 동기는 신뢰에, 이타적 동기는 신뢰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동기를 유발하는 관련 품질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지속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무슨 일을 지속하는 데는 개인의 '이기적, 이타적, 대의적' 동기가 작용하고, 그 동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끈기나 내구력, 참음이라는 내재적인 정서가 꾸준히 뒷받침 되어야 했다. 즉 한 개인이 어떤 일을 지속하는 근본에는 '열의' 나 '열정'이라는 원동력이 작동할 때 자발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스포츠, 기부활동 등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발현된 것이지 구속력이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직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중단되는[34]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연구자들의 연구 또한 그들의 의지에 따라 시작될 수도, 중단될 수 있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연구자의 열정 여부에 따라 융합연구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 열정의 발현이 이타적인 목적이든 이기적인 목적이든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익숙한 자기전공에서 벗어나 타 전공자들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극복해야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연구는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 즉 전문가 집단은 어떤 동기로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을까? 그것을 앞으로 융합연구자들의 지원 방향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4월 26~27일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된 HubCon 컨퍼런스<sup>1</sup>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학제간융합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팀들로, 전국의 24개 융합연구

1 HubCon 컨퍼런스(Humanities Based Convergence Conference)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을 한데 모아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하자는 취지의 행사임. 2019년 HubCon 컨퍼런스에는 총 24개의 융합연구팀 중 19팀, 71명의 융합연구자들이 참여함.

팀 중 19개 팀, 총 71명의 융합연구자들이 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공정성을 위해 행사 주최 측인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8명을 제외한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3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중복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빈도수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HubCon 컨퍼런스 기간 동안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의 연구원(학술연구교수 2명, 박사과정 3명, 석사 1명)들은 책임연구자 4~5명씩 배치된 5개의 토론 테이블에 각각 배치하여 책임연구자들의 발언을 녹취하고, 필기하도록 하여 정보를 수집, 이를 필사하였고,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여 부족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은 약점이 있으나 전국의 융합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신뢰도는 높다 사료된다. [표 1]은 설문 조사에 응한 연구대상자들의 속성 표이다.

표 1. 수집된 연구대상자 속성표

성별	남 (17명)	여 (15명)	-	-	-
연령	20대 (6명)	30대 (8명)	40대 (11명)	50대 (6명)	60대 (1명)
지역	서울/경기 (17명)	충청권 (3명)	경상권 (9명)	강원권 (3명)	-
역할	책임 (4명)	공동 (17명)	연구보조 (10명)	기타 (1명)	-
전공	공학 (8명)	사회과학 (13명)	예술체육 (6명)	인문학 (5명)	-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진로결정에 '우연한 계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논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박현영, 유금란(2012)[5], 안윤정, 오현주(2012)[18], 황현덕, 장선희 외(2012)[9], 이상희(2013)[6], 차영은, 김시내 외(2015)[11], 김보영 양나연 외(2016)[12], 김수리(2017)[19] 등이 개발한 설문지 등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사항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두 영역을 기존 연구들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설문은 비구조화 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3영역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이미 진로선택이 종료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 즉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전문가 집단에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

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고,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융합연구가 지속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 III. 조사 결과

#### 1. 융합연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한 조사결과

먼저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융합연구자들의 37.5%가 융합연구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하였다 응답하였다. 특히 책임연구자의 경우 4명 중 3명이 자발적으로 융합연구를 시작하였고, 융합연구가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공동연구자나 보조 연구원의 경우 9명이 융합연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융합연구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연히 융합연구를 알게 되어' 융합연구를 시작한 연구자가 무려 43.8%를 차지하였고, 비자발적 동기로 시작한 사람들과 이를 합하면 총 62.5%에 해당하는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비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전문가들에게도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무시하기보다 우연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우연한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융합연구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에 대한 연구 참여 유형별 조사결과

구분	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기타		합계	
	N	%	N	%	N	%	N	%	N	%
자발적으로 시작함	3	9.4%	6	28.1%	3	9.4%	0	0%	12	37.5%
우연히 알게 됨	1	3.1%	9	18.8%	4	12.5%	0	0%	14	43.8%
그렇지 않음	0	0%	3	9.4%	2	6.3%	1	3.1%	6	18.8%

그렇다면 융합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융합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53.1%의 연구자들이 '지인의 우연한 권유'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책임연구자의 경우에서도 1명이 '지인의 우연한 권유'가 계기가 되어 융합연구를 시작한 것처럼, 공동연구원의 경우 가까운 지인 교수로부터 융합연구 참여 권유를 받아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28.1%로 가장 많았고, 연구보조원의 경우 또한 지도교수의 권유에 의해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18.8%로 가장 많았다.

과반이 넘는 53.1%의 융합연구자들이 '우연히 권유를 받고' 융합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융합연구가 대세'라는 인식이 21.9%로 다음을 차지하였으나 그 격차가 3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융합연구가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융합연구의 참여 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연구자들의 경우 단학제적인 연구의 한계로부터 융합연구를 대세로 인식한 반면,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은 책임연구자의 우연한 권유를 받고 융합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융합연구의 시작 동기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보조연구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지도교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한 전공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라든지, '새로운 영역에서 업적을 쌓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동기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각각 1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이 융합연구를 통해 업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9.4%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경쟁사회에서 남다른 성과

로 비교우위에 서고자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적 요인)으로 융합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 2.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

무엇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매력(물질적, 심리적, 신체적 보상)이 지속되거나 의무, 책임, 욕심 등과 같은 이성적, 비이성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융합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의 익숙한 전공에서 벗어나 타 전공자들과 익숙하지 않은 연구방법, 지식체계 등을 수용하고 때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수고를 감내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즉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혼란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융합연구이다. 이렇게 성가신 의견 조율과정이 거쳐야 하는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자들에게 질문해 보았다.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46.9%의 융합연구자들이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7.5%의 연구자들이 '사회 공헌'과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융합연구자들 모두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교육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세대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융합연구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융합연구자 자신이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서 타 전공자들과 함께 융합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타 전공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당사자 혹은 양성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

표 3. 융합연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한 연구 참여 유형별 조사결과 (중복응답)

구분	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기타		합계	
	N	%	N	%	N	%	N	%	N	%
지인의 우연한 권유	1	3.1%	9	28.1%	6	18.8%	1	3.1%	17	53.1%
융합연구를 통해 업적을 쌓고 있는 지인의 소식을 듣고	0	0%	2	6.3%	1	3.1%	0	0%	3	9.4%
전공보다 새로운 영역에서 업적을 쌓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0	0%	2	6.3%	2	6.3%	1	3.1%	5	15.6%
익숙한 전공으로부터의 탈피	1	3.1%	3	9.4%	0	0%	1	3.1%	5	15.6%
융합연구는 시대의 흐름	3	9.4%	3	9.4%	1	3.1%	0	0%	7	21.9%
기타	0	0%	1	3.1%	1	3.1%	0	0%	2	6.3%

표 4.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연구 참여 유형별 조사결과(중복응답)

구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기타		합계	
	N	%	N	%	N	%	N	%	N	%
사회공헌	3	9.4%	6	18.8%	2	6.3%	1	3.1%	12	37.5%
연구실 운영 지속을 위해	1	3.1%	4	12.5%	2	6.3%	0	0.0%	7	21.9%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	2	6.3%	9	28.1%	4	12.5%	0	0.0%	15	46.9%
학술연구에 대한 기여	0	0.0%	4	12.5%	0	0.0%	0	0.0%	4	12.5%
도전이 삶의 활력	0	0.0%	2	6.3%	4	12.5%	0	0.0%	6	18.8%
나만의 업적을 위해	0	0.0%	1	3.1%	0	0.0%	0	0.0%	1	3.1%
차별화된 학문으로 승화	0	0.0%	4	12.5%	1	3.1%	0	0.0%	5	15.6%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	2	6.3%	6	18.8%	4	12.5%	0	0.0%	12	37.5%
타 전공과 융합하여 연구할 수 융합인재 양성 및 기교역할	2	6.3%	3	9.4%	2	6.3%	0	0.0%	7	21.9%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21.9%가 응답하였다. 그 외, '새로운 도전을 위해'가 18.8%,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해'가 12.5%, '나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융합연구를 지속한다는 대답이 3.1%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융합연구의 원동력이 사회를 위한 '이타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바람인 '이기적인 목적'이 뒤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 참여 유형에 따른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책임연구자들의 경우 '사회공헌'과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하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 수가 적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중복응답으로부터 책임연구자들의 융합연구의 원동력을 표현하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했고, 이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실을 운영"하려는 것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으로 공공성과 이타성을 띠고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연구원들의 경우 책임연구자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들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이 28.1%, '사회공헌(18.8%)'과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18.8%)'하다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책임연구자들과 다른 의견도 볼 수 있었다, 공동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실 운영 지속을 위해서(고용지속의 염원)'라든지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융합연구가 차별화된 학문으로 승화(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약의 장 확보)'하기

를 바라며 융합연구를 지속한다는 응답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 그 외, 융합인재 양성(9.4%), 도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6.4%), 나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한다고 응답하여 공동연구원들의 경우 이타성과 함께, 고용의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바람, 경쟁 시대에 남다른 결과를 만들고, 새로운 학문으로 승화시켜 안정을 하려는 개인적이면서 이기적인 욕구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조연구원들의 경우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목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 '도전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기 때문에',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지속한다는 의견이 각각 12.5%였고, 다음으로 '사회공헌', '연구실 운영 지속',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한다는 의견이 각각 6.3%로 나타나 보조연구원들의 경우 이타적인 동기 보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조연구원들과 공동연구원들의 이기적인 바람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보조연구원의 경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영역에서의 인재가 되려는 이기적인 동기인 반면 공동연구원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을 바라는 현실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융합연구 참여 유형으로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을 살펴본 결과 책임연구자의 경우 이타적인 동기가 원동력이 되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반면,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은 공공성과 함께 현실적인 동기가 뒤섞인 원동력으로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 3. 융합연구를 저해하는 요인

표 5. 융합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참여 유형별 조사결과(중복응답)

구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기타		합계	
	N	%	N	%	N	%	N	%	N	%
연구자간 불화	0	0.0%	1	3.1%	1	3.1%	0	0.0%	2	6.3%
연구지원 미흡	0	0.0%	2	6.3%	0	0.0%	0	0.0%	2	6.3%
성과에 대한 압박	0	0.0%	2	6.3%	3	9.4%	1	3.1%	6	18.8%
연구 성과에 대한 회의감	0	0.0%	1	3.1%	1	3.1%	0	0.0%	2	6.3%
전공과의 괴리감	0	0.0%	1	3.1%	2	6.3%	0	0.0%	3	9.4%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	0	0.0%	6	18.8%	3	9.4%	0	0.0%	9	28.1%
전공자들의 부정적인 견해	0	0.0%	1	3.1%	1	3.1%	0	0.0%	2	6.3%
연구서열 같은 한국사회 문화	0	0.0%	1	3.1%	0	0.0%	0	0.0%	1	3.1%
타 전공자의 자기전공 고집 유도	0	0.0%	1	3.1%	0	0.0%	0	0.0%	1	3.1%
세대차, 문화차	0	0.0%	1	3.1%	1	3.1%	0	0.0%	2	6.3%
기타	0	0.0%	1	3.1%	0	0.0%	0	0.0%	1	3.1%

그렇다면 융합연구자들의 융합연구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저해하는 요인이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56.3%로 나타나 융합연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별히 융합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크게 없는 가운데 28.1%의 연구자들이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융합연구를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성과에 대한 압박(18.8%)'이 융합연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공과의 괴리감이 9.4%, 연구자간 불화, 연구지원의 미흡, 연구 성과에 대한 회의감, 전공자들로부터의 부정적인 견해, 세대차와 같은 요인들이 융합연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구 참여 유형에 따라 융합연구를 저해 하는 요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연구자들의 경우 전원이 융합연구를 저해 하는 요인이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연구자나 보조연구자들의 경우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책임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반면, 53.1%(17명)의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은 '우연한 권유'를 받고, 즉 비자발적인 동기로 융합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책임연구자는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는 반면,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은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어 자발

적인 참여와 우연한 계기에 의한 참여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 1. 우연히 시작한 융합연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진로가 바뀌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연구자란 "어떠한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며,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합당한 절대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3]. 연구자들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로, 설마 '우연한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계기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62.5%를 차지했다. 특히 '우연한 계기(권유를 받고)'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가 53.1%를 차지해 대단히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전문가 집단에서 "우연"이라는 키워드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융합연구자 9명에 의해 출간된 『차이가 만드는 기적 융합연구 방법론』에서 책임연구자들이 "융합연구가 우연히 시작 되었다"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금요일 저녁 수업을 마치고 김 교수는 왠지 낯선 술집에 들어가 구석에 앉아 술 한잔을 기울이고 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니 컴퓨터공학과 윤교수가 지나간다...중략...텔레비전에서 무인자동차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최신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던 윤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이 필요할 때 경제성과 인간존중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고 이야기 했다. 철학 전공인 김교수는 인간 본연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융합연구가 시작되었다. p.83

대학병원 내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증강현실에 대해 연구하던 공학박사와의 인연으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언어치료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증강현실 기반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구현과 적용 연구(2017) 연구팀 p.84

건축과 교수와 개인적 교류를 하다가 건축학(이과), 경영학(문과) 사이의 구분을 없애자는 얘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건물을 설계하고 싶으나 경영학 쪽 교육과정 내에는 예술적 트레이닝을 할 수 없음을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 쉼터(Smart Shelter) 공간 구축을 위한 철학건축예술문화공학에 대한 융합연구(2015) 연구팀 p.84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노화 현상에 대해 뇌과학 전공자, 병원관계자와 대화를 하던 중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의 노인성 질병과 감각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논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의학적 결과가 아닌 감각계를 이용한 조기진단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평판 좋은 교수를 지속적 연락을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생체진단 가능 시각, 미각 수용체 기반 센싱기술 개발 (2009) 연구팀 p.85

위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책임연구자들의 사례로, 그들은 자신의 네트워크 반경에 있는 타 전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연하게' 융합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실이 아니라,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나,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공통분모를 발견'해서 융합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융합연구의 시작은 고립된 연구실이 아니라 '우연한 장소', '우연한 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아(發芽)하여 연구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연구원의 경우 융합연구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경우가 6명, '지인의 우연한 권유'를 받고 시작한 경우가 9명으로 나타나 책임연구자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

났다. 특히 자발적으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공동연구원들의 경우 이들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개시한 반면, '지인의 우연한 권유'를 받고 융합연구를 개시한 9명의 공동연구원들은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인 연구 참여자와 비자발적 연구 참여자 사이에는 연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보조연구원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3명)보다 지도교수의 권유를 받고 융합연구를 시작한 경우(6명)가 2배 많았다. 보조연구원들의 경우 지도교수의 권유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생소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3명)',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3명)'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로부터 융합연구를 권유 받는 과정에서 융합연구의 필요성(4명)을 인식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4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선택 이론들 중 '우연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우연이론'은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우연들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과 '기술(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호기심, 인내, 융통성, 낙관적인 태도, 위험 감수 행동과 같은 5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우연'을 '기회'로 바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 되듯이 책임연구자들이 타 전공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연한 발견을 함으로써 융합연구를 시작했던 것처럼 연구자들은 스스로가 익숙한 연구실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 노력을 통해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2.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

다산의 여러 저술들은 "인간의 욕구·욕망에 대해 그것이 악으로 가기 쉬운 사사로운 것이므로 절제할 것"을 주장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문성호[36]는 다산이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으로 욕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욕망

이 어떤 일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에서 기존의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욕망 때문에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을 도입하고, 융합하여 '기존 지식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선된 지식을 생성'하려 하는데 이것이 연구자의 욕망이자, 욕심이며, 숙명일 것이다.

조사결과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의 46.9%가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한다고 응답하였고,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과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7.5%로 나타나 융합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연구자의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무적이다.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을 응답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타 학문과의 융합연구가 필요한 시대여서',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후속연구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의적인 해석을 해 보면(복수 응답을 선택한 연구자들의 응답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움),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과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타 학문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또한 후속연구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국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이 연구자로서의 원론적 태도에 충실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가 올해로 종료되는 4명의 공동연구원으로부터 듣게 된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4명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2명만 소개함).

#### 공동연구원 A씨(40대), 여성, 서울지역

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을 보면 모두 미사여구예요. 저는 지금 새싹형인데 이번 해에 연구가 종료됩니다. 이 연구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2명이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월급도 받고요. 그런데 연구

가 이렇게 종료되면 저희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단기적인 연구지원은 우리 연구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밥상을 차려준 것까지는 좋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후속 세대양성도 마찬가지죠.

#### 공동연구원 B씨(40대), 남성, 부산지역

저도 새싹형 연구인데 올해가 5년째로 8월에 연구가 종료됩니다. 공모를 보면, 씨앗형, 새싹형만 있지 이후 줄기형과 든지, 열매형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8월에 연구가 종료 된다고 하니 저희 공동연구원 4명은 이제 동력을 상실해서 다른 일 찾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후속세대가 어떻게 양성되었습니까? 저희 공동연구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씨앗, 새싹 다음은 줄기, 열매라는 순서로 지원이 계속될 것을 기대 했는데 8월로 종료가 된다고 하니 매우 우울합니다. 저희가 모인 것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모인 것입니다.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대단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례에서는 연구 지속의 원동력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연구자로부터 고용이 된 공동연구원들의 경우 융합연구의 참여는 곧 연구 공간과 경제적인 지원, 신분이 보장되는 즉 기본권이 보장되는 조건이므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고, 공동연구원들과 보조연구원들이 응답한 '연구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든지 '융합연구가 차별화된 학문으로 승화'하기를 바라며 '융합인재 양성', '도전하는 삶의 실천', '나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개인적인 바람(고용지속의 염원,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약의 장 확보)이 융합연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융합연구의 참여 유형에 따라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원동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어떤 일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한 매력(물질적, 심리적, 신체적 보상)이 지속되고 있거나, 의무, 책임, 욕망, 욕심 등과 같은 이성적, 비이성적인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경우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에서 기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학문 발전을 위한 욕망 때문에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을 도입하고 융합하여 '기존 지식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선된 지식을 생산'하려 한다.

특히 융합연구자들은 익숙한 자기 전공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타 전공자들과 번거롭고, 성가신 조율과정을 거치는 수고를 감수하며 개선된 지식을 생산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성가신 과정을 굳이 감수하며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들은 융합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왜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의 융합연구가 자발적 동기보다(37.5%) 비자발적인 동기(62.5%) 특히 '지인의 우연한 권유'를 받아 시작했다는 응답이 53.1%에 달하고 있어 대단히 의외의 결과였다.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비자발적인 계기 즉 '우연한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결과는 전통적인 진로이론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연한 계기'라는 비이성적인 사건들을 무시하기보다 우연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타 전공자들의 연구방법, 지식체계를 수용하고, 때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성가신 융합연구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란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에서 기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다. 즉 새롭고, 개량된 지식을 생산해 내는 것이 연구자의 숙명이다. 융합연구자들 또한 연구자로서의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의 46.9%가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고, 37.5%가 '사회공헌'과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융합연구자들 모두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교육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세대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융합연구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속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타 전공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당사자 혹은 양성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21.9%가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융합연구자들의 연구 지속의 원동력이 사회를 위한 '이타적인 목적'이 두드러져 대단히 고무적이다.

한편 인터뷰조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 지속의 원동력으로 '융합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를 지속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공동연구원들이 책임연구자가 운영하는 연구실에 고용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기간과 고용기간에 연구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학제간융복합연구지원사업의 씨앗형구의 경우 연구지원이 1년이고, 새싹형은 3+2년 총 5년간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연구원들은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연구에서 이탈하거나, 연구를 지속하는 동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기본권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연구는 지속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와와의 대화를 통해 우연한 발견과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었다는 융합연구자들의 사례처럼 '우연한 계기'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를 꺼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연한 계기를 놓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즉 매일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자신만의 관점으로, 고독하게 논리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보다 가끔 연구실에서 나와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새로운 관점으로 개량된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들에게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잡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대회 이외에 HubCon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콜로키움에 참석해서, 관심이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잡담을 나누면서 가벼운 연대(weak ties)를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연구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에서 기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욕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기반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연구는 지속 될 수 없다. 대학의 일자리가 고정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지원단체가 최고의 학위까지 취득한 연구자들의 연구의지와 학문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사업의 기간을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형 지원 사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김은정, 이승연, 송지연, “융합연구자의 공부정경험이 융합연구에 대한 재시도 의향, 만족도, 지속의향,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pp.279-291, 2018.
- [2] 이상욱, “융합연구의 성공 조건,” KISTEP InL, Vol.25, pp.32-38, 2018.
- [3] 김광환, 김병만, 노영희, 박아르마, 반영운, 송인한, 이은석, 이현진, 정대근, *차이가 만드는 기적 융합연구 방법론*, 청람, 2019.
- [4] J. W. Rojewski, “The Role of Chance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Individuals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Vol.22, No.4, pp.267-278, 1999.
- [5] 박현영, 유금란,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사건의 역할: 진로적응성을 매개효과로,” 사회과학연구, Vol.28, pp.57-80, 2012.
- [6] 이상희, “진로선택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직장인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인간이해, Vol.34, pp.111-133, 2013.
- [7]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Vol.4, No.1, pp.1-27, 2015.
- [8] 이민아, “한국 직장인의 우연사건 대처기술 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진로낙관성 및 직무만족의 차이,” 상담학연구, Vol.18, No.1, pp.287-306, 2016.
- [9]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Vol.20, No.2, pp.193-210, 2012.
- [10] 조남근, 정미예,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20, No.12, pp.337-357, 2013.
- [11]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불안,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탐색,” 인간이해, Vol.36, No.2, pp.67-85, 2015.
- [12] 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8, No.2, pp.491-508, 2016.
- [13] 장진이, 천영민, 홍원경, “계획된 우연 역량의 개념화와 진로상담으로의 도입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Vol.18, No.6, pp.219-238, 2017.
- [14] 이지원, 이기학, “2018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계획된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0, No.4, pp.1271-1299, 2018.
- [15] 한민영, 오은주,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행정, Vol.17, No.1, pp.71-80, 2019.
- [16] 손은령,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Vol.10, No.10, pp.385-397, 2009.
- [17] 손은령, “직업 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40대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Vol.13, No.2, pp.437-453, 2012.
- [18] 안윤정, 오현주,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Vol.25, No.4, pp.117-140, 2012.
- [19] 김수리, “계획된 우연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 전환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6, pp.623-641, 2017.
- [20] P. J. Hartung and D. L. Blustein, “Reason, intuition, and social justice: Elaborating on Parson's career decision-making model,”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Vol.80, pp.41-47, 2002.
- [21] K. E. Mitchell, A. S. Levin, and J. D. Krumboltz,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7, pp.115-123, 1999.

[22] D. G. Betsworth and J. I. C. Hansen, “The categorization of serendipitous career development ev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pp.91-98, 1996.

[23] J. Scott and J. Hatalla,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the vocational behavior,”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39, pp.18-30, 1990.

[24] D. H. Hart, K. Rayner, and E. R. Christensen, “Planning, Preparation, and Chance in Occupational Ent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 pp.279-285, 1971.

[25] P. R. Salomone and R. B. Slaney,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1981

[26] 이용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7] 유용식, 손호중,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Vol.8, No.2, pp.27-57, 2009.

[28] 김범수, 권동호, “생활체육참여자의 열정, 건강신념 및 운동지속의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43, pp.883-893, 2011.

[29] R. J. Vallerand, “On passion for life activities: The Dualistic Model of Passion. In M. P. Zanna(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2, pp.97-193, 2010.

[30] R. J. Vallerand, C. M. Blanchard, G. A. Mageau, R. Koestner, C. F. Ratelle, M. Leonard, M. Ganer, and J. Marsolais,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5, No.4, pp.756-767, 2003.

[31] M. Conner and P. Norman, *Prediction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practice with social cognition Model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6.

[32] 김주원, 김용준,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 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Vol.37, No.3, pp.629-658, 2008.

[33] 황용진, 종교방송 후원자의 기부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계품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 박사학위논문, 2011.

[34] 홍연숙,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5] 문성호, “다산의 ‘인간 욕구·욕망관’에 관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21, No.4, pp.21-42, 2018.

### 저 자 소 개

#### 정 근 하(Geun-Ha Jung)

정회원



- 2002년 2월 :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일본어학과(공학사, 문학사)
- 2007년 3월 :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사회학석사
- 2010년 11월 :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사회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한일 사회문화비교, 청년층 사회문제, 한국기독교 문제, 융합연구, 다문화

#### 노 영 희(Younghee Noh)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지식콘텐츠연구소 소장
- 2017년 9월 ~ 현재 :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장

- 2017년 9월 ~ 현재 : 융합연구총괄센터장

<관심분야> : 국제연구협력, 지식콘텐츠, 정보시스템